

【서평】

소광희 저, 『자연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8

—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철학의 정체성 —

정은해

## 1. 제목의 의미

학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역사상 반복되어 왔다. 근대 이후로만 살펴볼 때도 19세기 전반에 오귀스트 콩트가 <실증철학 강의> (1830-1842)에서 또 존 스튜어트 밀이 <논리학의 체계—연역과 귀납>(1843)에서 학문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을 수행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델타이(<정신과학 입문>, 1883)와 리케르트(<문화과학과 자연과학>, 1898)가 그 뒤를 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베버(<경제와 사회>, 1922)가 다시금 학문의 방법론적 논쟁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하버마스가 <인식과 관심>(1968)에서 학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작업을 속행하였다. 특히 하버마스는 학문의 역사 속에서 자연과학들과 정신과학들이 갈라지고, 이후에 비판적 과학이 덧붙여진 사실에 의거해서 인간의 세 가지 인식관심을 확인해 낸다. 그것들은 대상들을 완전하게 다루려는 기술적 인식관심,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소통하려는 실천적 인식관심, 인간에 대한 지배를 해체하려는 해방적 인식관심이다.

최근 소광희 전 교수에 의해 출간된 <자연 존재론—자연과학과 진리의 문제→(2008)도 학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맥락에서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머리말과 서론에서 인간이 애초부터 생존을 위

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자연과 역사적 사회 및 자기 자신이었다고 지적한다. 이 맥락에서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의 자연과학, 역사성을 가진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사회·역사의 제 과학, 자아를 성찰하는 것으로서의 인문학이 성립한다고 밝힌다.

이 같은 세 부류의 학문들에 대응하는 철학 영역에게 저자는 저마다의 이름을 부여한다. “그 개별학문을 나는 크게 자연과학, 사회·역사과학, 인문학으로 구분한다.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상응하는 철학]은 각기 자연 존재론, 사회·역사 존재론, 자아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9) 이로써 저자는 철학을 영역 존재론으로 세분해낸 셈이다. 저자는 <자연존재론>의 부제를 ‘자연과학과 진리의 문제’로 붙임에 의해 자연과학은 효율성이나 당위성 등에서 진리를 찾는 실천철학과는 다르게 객관성에서 그 진리를 찾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사실 영역 존재론이란 말은 일찍이 후설이 <이념들 III-1>(1977)에서 사용한 말로 그것은 개별 학문들의 고유한 탐구 영역을 규정하는 영역적 본질들 및 범주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연관관계를 해명하여 개별 학문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논의를 일컫는다. 이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루카치의 유고가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1971)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바 있고, 이후 사회 존재론이라는 용어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으로 의도했던 바를 상기해보는 것도 용어들의 이해를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수학은 양을 다루고 물리학은 운동을 다루고 생물학은 생명을 다룬다. 이런 것은 존재의 특정한 방식들을 다루는 일이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양이나 운동,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다루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한 형이상학과는 다른 것이다. 볼프 형이상학을 계승한 칸트의 용법으로 말한다면, 존재로서의 존재를 다루는 것은 일반존재론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를 다루는 것은 특수존재론이다. 영역존재론은 특수존재론에 상응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자연 존재론>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 책이 자연과학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자연과학의 영역적 본질과 범주들에 대한 영역 존재론적 탐구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과학과 철학이 역사과정을 통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았는지”(12)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학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자연 존재론으로서의 철학의 역할”(13)이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런 검토 작업은 전문화의 길을 걸으면서 점차로 포괄성을 상실하고 편협해진 철학에게 자기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보리라는 저자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2. 내용의 전개

이 책은 다섯으로 나누어진 역사 시기에 맞추어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를 다루는 1장은 ‘피지스와 고대의 존재 사유’라는 이름을, 중세를 다루는 2장은 ‘신앙시대 자연 존재론의 향방’이라는 이름을, 칸트까지의 근대를 다루는 3장은 ‘근대의 자연 존재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어지는 4장은 ‘18·9세기의 자연 연구: 자연의 산업화’, 5장은 ‘20세기의 자연 연구: 제2 과학혁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1) 저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과학과 철학의 발단이 된 것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였고, 이것이 이들을 신화적 사고와 구분되도록 하였다고 지적한다. 신화적 사고는 “의인적, 물활론적”(34) 사유인 반면에, 과학적 사고는 “사물을 기계론적,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35)이라 한다. 과학적 사고와 비교되어 철학적 사고는 “하나의 원리 또는 최소한의 원리로 모든 사상[사안]을 설명하려는 시도”(36)라고 규정된다. 그런데 저자는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의 발생의 순서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적·철학적 사유는 그런

현상적 자연의 근원인 피지스, 즉 사물의 불변하는 성질·본질·본성·원리에 대한 탐구였다”고만 밝히는데, 이것은 그 둘이 거의 동시 발생적이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이점은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변 철학자들이 동시에 과학자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긍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반면 인간의 지적 발전이 역사적으로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의 3단계로 발전해왔다는 콩트의 지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갸웃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지고 본다면 사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신화적 사유, 형이상학적 사유, 실증적 사유가 혼재해 있었을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사람이란 사후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생전을 상상하는 존재이고, 아울러 현실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머릿속에서도 세 유형의 사유들이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 시기별로 인간의 사유의 주된 경향성에 주목하여 본다면, 콩트의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유는 피타고라스의 수의 철학과 탈레스 등의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자는 플라톤이 피타고라스학파에 크게 영향을 받고 경험적 가변성이 배제된 명료한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학(기하학)을 “영혼 정화를 위한 불가결한 길잡이”(100)이자 “학문연구의 필수 예비과정(방법론)”으로 수용하였고 본다. 수학을 배경으로 플라톤은 이데아론, 정의론, 천체론 등을 전개하였는데, 그의 아카데미아에서 배출된 수학자들은 이후의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수학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의 전범이 되도록 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자연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자연학, 형이상학, 천체론을 전개하였다고 본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학 속의 “삼단논법”(103)과 “동물학” 분야의 경험 관찰적 연구방식은 이후 철학과 과학의 방법론으로 수용되었다고 밝힌다.

2) 중세에는 그리스 철학자 중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전승되어 연구되었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세적 전승에 있어서 그의 자연학보다 그의 형이상학이 중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중세의

“존재 계층론과 목적론[적 우주론](125)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를 대표적인 것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곧 지구중심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추론이 “중세의 학문방법론”(127)이 되었다는 점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을 표본으로 확인한다. 이 시기에 철학 자체가 과학기술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세기의 과학기술로 말해질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이슬람에 의해 서유럽으로 천문학, 의학이 전해져 교육되었고, 아라비아인에 의해 수학과 연금술이 전해졌다. 연금술이란 통상의 부정적 의미와는 달리 금속을 제련하여 합금을 만드는 일이고, 유리, 도자기, 염료 등을 제조하는 일이고, 수은과 초산 등을 이용해 여러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이 “화학의 발생적 원조”(145)가 되었다고 한다.

3) 근대의 자연연구는 헬레니즘의 연구 업적을 부활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관찰 실험에 의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이를 대표하는 사실이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론을 계승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이 대체된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저자는 이러한 시대 경향이 과학적 방법론의 확립의 노력을 불러왔고,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등장시켰다고 본다. 베이컨은 “신기관론”(176)을 통해 삼단논법 대신 실험 관찰에 토대를 두는 귀납법을 제시하였고, 데카르트는 인식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수학적 절차에 의해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대해 “두 철학자의 방법은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근대과학의 유일한 방법론[실험과 수학]이 되었다.”(193)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을 배경으로 출현한 뉴턴은 역학과 수학에 의해 자연에 접근하고, “실험과 수학적 연역의 방법”(196)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당시에 인식론을 통해 방법론을 정초하려고 한 흐름은 경험론과 합리론이다. 합리론자인 스피노자는 <기하학적 질서로 증명된

윤리학>을 저술하였고, 단자론으로 유명한 라이프니츠는 논리학을 수학화하는 ‘보편기호론’을 제시하여 현대의 기호논리학의 문을 열었다. 저자는 이들이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자연 연구의 방법이 실험과 수학이라는 전제 아래 그것을 인식론의 차원에서 근거지우고 체계화한”(226) 사람들 중의 한 축인 합리론자들에 해당하고, 로크, 버클리, 흄 등의 경험론자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룬다고 본다. 경험론은 합리론이 독단론으로 빠질 가능성을 일깨웠다는 공적을 갖지만, 그 스스로는 회의론에 빠지고 마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 맥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등장한다. 이 책에서 칸트는 합리론적 요소와 경험론적 요소, 오성의 작용과 감성의 작용을 모두 수용하면서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하였는데,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인식론을 완성함으로써 근대 과학혁명을 이룩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근거지운”(281)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다.

4) 18·19세기는 사회개혁과 혁명의 시기였다. 자연 연구의 면에서 저자는 18세기를 화학의 시대, 19세기를 생물학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고 밝힌다. 특히 19세기에 대해 “17세기의 과학이 거시 세계를 보여준 것과는 반대로 새로 등장하는 원자론과 세포학 및 미생물학은 우리를 미시 세계로 인도하였다.”(289)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 시기는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산업의 원동력으로 활용한 시대라고도 평가한다.

이 시기에 발명된 것들로는 크로노미터(항해용 측량장치)와 증기기관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연소설)이 제기되고, 라부아지에에 의해 산소가 발견되며 이를 근거로 플로지스톤 이론이 부정되고, 돌턴에 의해 원자론이 제시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화합물의 전기분해가 시도되는 등 이제 화학이 자연과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등장한다. 화학의 발전은 염소 표백법의 개발, 염료의 제조, 인공비료의 제조, 노벨에 의한 다이내마이트 발명 등을 낳음으로써 화학이 산업에 적극 기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자연 연구 분야로 전기학, 전자학, 열역학 등이 등장한다. 이 외에도 유기화학

분야에서 마이어와 멘델레예프에 의해 주기율표가 정리되고, 발효 산업 분야에서 파스퇴르에 의해 유산균과 효모균이 발견되고, 생물학 분야에서는 종래의 생물 종의 자연분류 체계법 및 인위분류 체계법이 대두하고, 다윈의 진화론도 등장한다.

저자는 이 시기의 자연 연구에 대한 철학적 반응을 독일의 신비주의에서 찾는다. 독일은 이 시기에 신비주의적 생명관 내지 목적론적 생명관을 발전시켰는데, 저자는 이것이 “프랑스와 영국의 과학 사상에 대한 독일식 응답, 달리 말하면 18·19세기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독일의 철학적 대응”(364)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기계론적 입장에 대립되는 이런 신비주의적 경향은 생기론, 독일의 문학운동인 질풍노도, 셸링의 자연철학을 거쳐 세포학과 유전학, 오늘날의 분자생물학으로 이어졌다고 해설한다.

5) 저자는 20세기를 16·17세기에 있었던 과학혁명과 비교하여 제2의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제2 과학혁명과 제1 과학혁명의 차이는 “과학연구의 진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 그 정보의 공유가 범세계적이라는 것”(400) 등에서 찾아진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자연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무기물과 유기물인 까닭에 자연에 대한 연구는 이제 물리과학(화학, 지구과학, 천체물리학 등)과 생명과학(생화학, 미생물학, 세포학, 유전학, 의약학, 식품공학, 생태학 등)으로 편성되고 있다.

물리과학 영역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수용되었고, 원자물리학적 관점에서 원자, 양자, 소립자에 대한 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명과학 영역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논의로서의 세포학이 매우 진척되었고, 염색체에 관한 논의를 넘어 DNA의 구성과 RNA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분자생물학이 전개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명론에서는 기계론과 생기론, 전체론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생태학에서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라는 위기 의식에 이끌려 무생물과 동식물,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20세기의 자연 연구에 대응하는 철학의 방식들을 저자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한다. 그중 첫째는 독일의 방식으로, 이것은 “생명이라는 큰 주제를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495) 논하는 철학이론들이다. 여기에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영도 하에 전개된 평등을 향한 실천운동, 인간의 역사적 삶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의 명증성이나 인간의 심층 심리의 이해를 위한 내면화(환원) 작업, 인간의 생활세계를 통해 현실을 보려는 실존사상 등이 있다. 둘째는 미국의 방식으로 퍼스와 듀이에 의해 개척된 “실용주의” 내지 “미국의 독자적 생활철학”(497)이다. 셋째는 수학과 논리학 분야에서 기호논리학의 구축인데,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법에 입각해서 새로운 방법론”(498)으로 개발된 것이다. 넷째는 자연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성찰로서 넓은 의미의 과학철학인데, 여기에는 과학자가 자기의 주장을 중심으로 현대의 자연 연구를 철학적으로 개진하는 일(하이젠베르크), 철학자가 현대의 과학연구의 성과를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일(라이엔바흐와 카르납), 과학의 발전과 사회혁명을 성찰하는 일(토마스 쿤), 학문일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유기체 철학이나 과정 철학이라는 “독자적인 형이상학”(499)을 건설하는 일(화이트헤드) 등이 해당한다.

저자는 이들 중 첫 번째의 독일방식은 “다분히 반자연과학적 경향”을 보이고, 두 번째의 미국의 방식은 “상식에도 적합한 종합적 철학사상”이고, 세 번째의 기호논리학 구축 과정은 “신 오르가논의 개발” 노력이며, 네 번째의 과학철학은 현대방법론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자연철학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라이프니츠, 프레게, 러셀, 화이트헤드 등에 의해 발전된 기호논리학이 “학문일반의 방법론으로서 서보다는 현대 과학철학의 방법론으로서 기여하고 있다”(516)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기호논리학이 갖는 이 같은 방법론적 제한성이 결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법론은 탐구의 대상의 성격에 따라 또는 인식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저자는 역사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한 형식논리학은 주로 신학과 인



문학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제시한 실험과 수학적정신은 자연과학 연구에 기여했듯이 “수학을 모델로 한 현대의 기호논리학은 주로 자연과학에”, 특히 “현대 과학철학 분야에서”(517)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저자는 자연 연구에 대한 철학의 대응을 검토하는 맥락에서 기호논리학과, 현대분석철학,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자연철학의 현대판이라고 불릴만한 것이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소개하려 애쓰는 철학이다. 저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특징짓는 말인 유기체 철학, 과정 철학이 이미 “이 철학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현실성 위주가 아니라 가능성 위주의 철학이고 그래서 기계론적이라기보다 목적론적이라는 것을 암시”(533)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면에서 그가 20세기의 데카르트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그를 “20세기의 라이프니츠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힌다.

5장의 마지막 절(IV)에서 저자는 ‘20-21세기의 과학기술과 새로운 문명형태’라는 제목으로 현대 문명을 진단한다.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연구기구의 발명으로부터 과학과 기술은 한 몸이 되기 시작”(556)했고, 이로부터 새 문명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어 머지않아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별로 이주 할 수 있을”(557) 정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 생명체의 자기복제가 가능해진 현실이 인간 자신의 “영집회귀”도 가능하게 하고, 기억의 재생을 추가할 경우에는 “자기부활”도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이것이 행복한 일인지,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저자는 현대 문명과 그 속의 인류의 삶에 대한 다음과 같이 진단으로 560여 쪽의 본문 말미를 장식한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운명을 마구 바꿔놓는다.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변형되고 어떤 삶을 사는 존재자가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558) 이 같은 결어에서는 현실에 대한 저자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릴 뿐, <유럽학문의 위기>나 <근거율>에서 울려나오는 후설

과 하이데거의 비장한 어투는 들리지 않는다. 이미 후설과 하이데거의 사상을 천착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그들의 비장한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까지 덧붙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의 현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겸손의 자세를 지키려 한다. 사실 이런 자세는 이 책 전체의 서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저자는 자연과학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그 속에 담긴 문제점들을 찾아내 비판하려 하기보다는 객관적 관점에서 그 전개과정을 다만 충실히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 3. 저작의 의도

<자연 존재론>이라는 제목을 지닌 이 책은 제목이 주는 인상만큼 체계적인 저작은 아니다. 체계라는 말로부터 공리와 정의에 의해 정리가 도출되는 과정과 비슷한 것을 떠올린다면 더욱 더 아니다. 사실 거의 600여 쪽에 이르는 대 저작이 하나의 체계로 저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책이 꼭 체계적인 저술이어야만 성공적인 것도 아니다. 딜타이의 <정신과학 입문 I>(1883)이나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1960), 하이데거의 <철학에의 기여>(1989)도 체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저자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 책들이다. 따라서 음미되어야 할 것은 책에 담긴 저자의 의도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연과학과 철학이 역사과정을 통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학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자연 존재론으로서의 철학의 역할”이었음을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점에 보자면 이 책은 저작의 목적을 잘 성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책은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현대의 기호논리학까지 당대의 자연과학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등장한 철학들을 충실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때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할 정도로 역사 속의 철학들과 개별적 자연과학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필요는 독자에 따라 매우 중요한 필요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술은 고교시절 이후로 자연과학에 등을 보인 채 지내는 인문학도들에게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자연과학에 입문하는 길잡이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자연과학도들에게 자연과학과 철학과의 만남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때에는 문·사·철이라는 용어가 통합적 학문 연구의 지침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거의 색 바랜 말이 되었다. 물론 이런 지침이 되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문·사·철의 통합적 사유를 넘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유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인문학도와 자연학도들에게 사유의 지평을 크게 확대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독서의 와중에 떠오른 몇 가지의 의문도 있다. 이런 의문들을 언급해 두는 것은 속행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을 위해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적인 의문은 포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으로부터 개별학문들이 분화되어 나간 지금의 상황에서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철학과 과학의 차이는 사변적 작업과 실증적 작업의 차이인가? 연역과 귀납의 차이인가, 전체 탐구와 부분 탐구의 차이인가, 아니면 초경험적 원리와 경험적 원리의 차이인가? 다른 하나는 과학에 대한 철학의 기여방식에 대한 것이다. 철학은 현대에 이르러 과학철학이 주장하듯이 과학적 연구내용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맡아야 하는가? 아니면 후설이 언급했듯이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영역존재론을 전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이데거가 실행했듯이 자연과학이 사물에 몰입하여 사물의 사물성(세계반영)을 망각해

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가? 물론 이러한 의문들은 역사상 반복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때마다의 상황이 철학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소광희 전 교수의 역작은 신진학자들에게 문리과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사유의 필요성과 더불어 금세기의 철학의 정체성을 물을 필요성을 함께 일깨워주는 저작이 되리라고 본다.

정은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BK연구원